

## 아내와 의논하라

(사)두란노아버지학교 국제운동본부장 김 성목 장로

“전 요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방송이 끝나자마자, 담당 PD가 내 아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PD의 남편은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의논 끝에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걸어 “여보, 나 여기 베를린이야! 베를린으로 옮겼어. 여기가 훨씬 교수진도 좋고, 물가도 싼 것 같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주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PD는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져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 가?’라는 고민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급기야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펄쩍 뛰며 “아니, 이런 일로 이혼을 생각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이런 경우, 왜 아내들과 사전에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면, 대개는 “아내가 신경 쓸까 봐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런 경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내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할 필요가 뭐 있나 ? 그렇지 않아도 아내는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데....’라고 생각하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장으로 보면, 참 가혹한 일이지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아마 독일에 가 있는 남편은,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 보라고해!’ ‘나는 아내를 이토록 사랑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남편의 말처럼, ‘내가 이 이상 더 잘하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아내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의 입장으로 보면,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계속 공부하든가, 만일 프랑크푸르트가 교수진이 좀 부족하거나 물가가 비싸서 베를린으로 옮기려면, 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나와 의논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뒤통수 때려서 나 하는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도대체 뭐야?’라는 생각 끝에,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고, 결국 크게 상심한 PD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대해 줄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아내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때,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강의를 하던 중,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살림에 돈을 아껴 쓰느라 오래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TV가 가끔 고장이 나서 말뼉을 피웠습니다. 손재주가 좀 있었던 남편이 그때마다 TV를 그런대로 고쳐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TV가 또 고장이 났는데, 계속되는 출장으로 손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을 TV 없이 살면서, 아내가 TV를 좀 고쳐 달라고 졸라댈 때마다, ‘알았어!’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자.’고 다짐을 했고, 어느 날 큰마음을 먹고 새 TV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TV 사왔어!”라고 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여보, 누가 TV 사오랬어요? 가서 당장 바꿔 와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너무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알았어. 그럼 안 보면 될 거 아니야!”하고는 그 TV를 창고에 넣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여자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고 싶었는데, 아내는 그 일로 화를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은 TV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TV를 사오는 남편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길거리에서 가전제품을 사오지만, 아내는 칭찬대신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수였고, 아내는 의사였습니다. 아내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몹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두 사람은 남편 친구의 권고로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고부간의 문제가 좀 심각했기로서니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해서 나를 곤경에 몰아넣느냐는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내 강의를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부간의 문제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제가 절망이라고 느꼈을 때는 제가 남편에게 ‘여보, 냉장고 바꿔야 하는데 뭐로 바꿀까?’ 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은,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그런 것 하나 결정 못해 내게 물어? 난 신경 쓸 틈이 없으니, 바꾸든 말든 알아서 해!’하고 내 뺨듯이 이야기할 때였어요. '알아서 해!' '아무거나 사!'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전 그 때마다, ‘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리곤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윽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남편과 의논하고 싶어 하는 아내에게, 그 때, “여보 그래? 음, 냉장고를 바꿀 때가 됐구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갈 수는 없고, 난 XX 제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사도록 해. 당신이 사는 건 늘 마음에 들더라. 난 당신의 안목을 믿거든...!”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내는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아니, 한 수 더 떠서, “그래 내가 이번 공휴일에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볼 테니 우리 같이 가서 고르자. 보나마나 당신이 고르는 것은 틀림 없을 거야. 당신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거든...”이라고 했다면, 아무리 고부간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할지라도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증권투자 실패로 힘들어 하는 부부를 가끔 만납니다. 그런 경우, 대개 두 부류로 나뉘집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합의하에 증권투자를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는 아내가 끝까지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줍니다. 한 은행 지점장의 부인은 남편의 증권투자 실패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남편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식당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은 늘 모든 것을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했고, 성공의 기쁨도 함께 나눴고,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누어 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증권투자를 하다 실패한 경우,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개 남편들은 아내 몰래 증권투자를 해서 목돈을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좋아할 거라는 일종의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내의 정체성을 세워주

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아내와 의논하고 상의하고, 아내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사표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 한 마디에 아내는 가슴이 철렁하겠지만, 의견을 묻는 남편이 있어 행복하고, 강한 모성애의 본능으로 생의 열정을 되살릴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은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지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오감을 사용하지만, 여자들은 육감을 사용합니다. 아내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때로는 더디고,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아내가 뒤에 있기에 두려움 없이, 둘이 하나 되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